

# 진흥회 활동

## 전자산업 통상전략 포럼 개최



본회 통상과에서는 지난 6월13~14일 춘천 두산리조트에서 통상관련 유관기관 및 민간전자통상 협력위원회 위원 등이 모인 가운데 개최되었다.

본회 민간전자통상협력위는 대외통상변화와 수입규제 대응의 일환으로 매년 정부관계자 및 통상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정부의 대외통상정책을 듣고 협력위제위들의 정책건의나 애로사항을 수렴하는 표제건의 행사를 개최해 오고 있다.

금년에는 최근 선진국의 수입규제 유형과 우리 업체의 수입규제 대응형 해외투자에 대한 업계의 이해를 돕고 그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통상문제와 해외진출”라는 주제로 제4회 행사를 갖게 되었다.

일정은 다음과 같다.

### □ 제1부 : 개회 및 주제발표.....6.13(금)

- 17:00 개회 및 인사말/  
전자산업진흥회 이상원 상근부회장
- 17:10~18:40 통상전문가 초청 강연  
「반덤핑대응 기업경영 전략」/  
안진회계법인 고영채 회계사  
「다자간 투자협상과 아국기업 대응방안」/  
재경원(국제투자과, 문재우 과장)
- 18:40~19:00 질의응답

### □ 제2부 : 패널 주제발표.....6.14(토)

- WTO수입규제 관련 법규 이행현황/통산부(WTO과 김한수 과장)
- 원산지 협상(우회, 통일)/산업연구원(고준성 박사)
- Case 스터디
  - Case 1 : 수입규제 우회문제/  
현대전자(최수 이사)
  - Case 2 : 해외경쟁문제/LG전자(이행일 실장)
- 한국내에서의 반덤핑 제소사례 연구/무역위원회(김한진 과장)

### □ 제3부 : 자유토론.....6.14(토)

이중 업계의 의견개진 및 질의사항에 대한 정부관계자 등의 답변형식으로 진행한 자유토론에서는 반덤핑제도에 대한 거시적 대응 필요성, 반덤핑제도시

정부의 사전대응 필요성과 정부창구의 단일화 통상네트워킹 구성의 필요성, 산업피해 구제제도 지원 자금 이용확대 등의 질의·답변 등 의견개진이 있어 통상현안에 대하여 정부측 뿐만 아니라 업계대표의 발표기회를 통하여 업계의 애로와 건의를 정부 통상 관련 부처에 전달할 수 있었으며 상호 이해증진에 도움이 되었다.

또한 외국과의 통상협상에 직접 참여한 정부관계자들의 생생한 경험을 직접 들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업계 관계자들에게 통상현안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기회가 되었다.

면 '96년의 한국전자산업은 미국(4.7%성장), 일본(5.7%성장) 등 선진국은 물론이고 싱가포르(7.2%성장), 대만(7.8%성장) 등 개도국 보다도 낮은 2.4%의 성장을 하였으나 생산액 순위로는 미국, 일본, 독일에 이어 세계 제4위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전자산업이 이와 같이 저성장을 하고 있는 것은 고비용 생산 여건에 따라 생산품목을 기술집약 품목 중심으로 고도화 해야 하는데 그 진전이 저조하기 때문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96년 세계 10대 전자 산업국의 생산〉

(단위 : 억불)

구 분	'95년	'96년	성장률(%)
세계전자산업	9,826	10,332	5.0
① 미 국	2,851	2,985	4.7
② 일 본	2,671	2,824	5.7
③ 독 일	522	524	0.4
④ 한 국	494	506	2.4
⑤ 싱 가 폴	398	427	7.2
⑥ 영 국	364	375	3.0
⑦ 프 랑 스	353	356	0.9
⑧ 대 만	294	317	7.8
⑨ 말레지아	278	311	11.9
⑩ 이 태 리	209	216	3.3

## 세계전자시장 동향 및 전망분석

— 한국전자산업 2.4%의 저성장, 세계 4위 제자리, '98년은 세계 시장은 컴퓨터 등의 주도로 5.3% 성장 —

한국전자산업진흥회가 세계적인 전자 시장조사 기관인 영국의 「Elsevier Advanced Technology사」의 '97년 세계 전자시장 자료(Year book of World - Electronites Data '97)에 의해 분석한 바에 의하

〈'96 주요국의 전자 생산품목구조 비교〉

(단위 : %)

구 분	세계전체	미 국	일 본	독 일	영 국	싱 가 폴	대 만	한 국	
합계	생산액(억불)	10,332	2,985	2,824	524	375	427	317	506
	구성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산 업 용 기 기	63	71	55	71	74	62	68	28	
컴 퓨 터	27	27	29	16	34	56	58	16	
통 신	19	27	17	24	23	4	8	10	
기 타	16	17	9	31	17	2	2	2	
가 정 용 기 기	8	2	8	6	7	7	4	18	
전 자 부 품	29	17	27	23	19	31	28	54	
반도체, 전자관	18	15	23	9	8	21	10	40	
기 타 부 품	11	2	4	14	11	10	18	14	

즉, 시장규모(세계시장의 63%)가 크고 기술이 보다 집약된 컴퓨터와 같은 산업용 전자기기의 생산이 한국은 전자 전체생산의 28%를 차지 하는데 비해 미국과 독일은 71%, 영국은 74%, 일본은 55%, 대만과 싱가포르도 68%와 62%를 각각 차지하고 있어 업계와 정부가 이분야의 집중적인 개발과 지원이 시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 한편 수요측면에서 보면 세계전자시장은 '97년에 사상처음으로 1조억불을 넘어 1조 213억불에서 '98년에는 1조 752억불로 5.3%가 성장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이는 '97년 5.0% 보다 다소 높은 것이다.

이를 분야별로 보면 정보화 사회 확산으로 컴퓨터 시장이 지속적으로 증대(6.2%성장)되고 반도체 시장도 급년의 5.0%에서 9.4% 성장으로 회복 될 것으로 본데 기인하고 지역별로는 일본시장이 5.9%로 높은 성장을 하고 신흥개도국인 말레이시아, 태국, 중국 등 주로 아세아 지역의 시장이 8.4%로 성장을 주도 할 것으로 내다 보았다.

- PBT와 노릴이 주종으로 쓰임

○ FBT업체별 수지류 사용 현황

- 삼성전기 : PBT : 20톤/월, 노릴 : 120톤/월
- LG전자 : PBT : 16톤/월, 노릴 : 95톤/월
- 대우전자부품/DNF 전자 : PBT : 10톤/월, 노릴 : 60톤/월

○ PBT 국내생산업체 : 동양나이론, 삼양사, LG화학, 선경, 제일모직, 코오롱

○ 노릴 생산업체 : 제일모직

- 그동안 GE사에서 독점 공급을 했으나, 제일모직에서 최근에 국산화
- '96년까지 GE사의 특허문제로 국내업체에서 개발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특허 시효 말소

○ PBT, 노릴의 표준화 추진을 통한 FBT업계의 원가절감 효과 기대 예상

- 재질의 특성 표준화 등에 대해 폭넓은 논의가 있었으며 차기회의는 7월중에 개최키로 하였다.

## FBT 표준화 회의

본회 부품과에서는 지난 6월 12일 본회 회의실에서 LG전자, 삼성전기, 대우전자부품, DNF전자 등의 관련자가 모인 가운데 FBT 표준화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 내용으로는

○ FBT에 사용되는 수지류 표준화 규격 합의

- 수지류(Resin) 종류
  - 에폭시
  - PBT(Polybutylene Tereprate)
  - 노릴형
- 에폭시는 원료의 성질이 달라 사용치 않고 있음

## 리사이클링사업 추진 부사장단 조찬간담회



본회 환경과에서는 지난 6월 26일 팔레스 호텔 2

층에서 LG전자 한홍광 부사장, 대우전자, 삼성전자, 환경부 재활용과장, 통상산업부가 모인 가운데 가전제품 리사이클링 사업계획승인, 리사이클 사업 추진에 관한 협정체결 추진과 관련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가전업체별 리사이클링센터 분담 건립, 리사이클링협의체 구성·운영 등 기본 사업계획과, 이를 추진키 위한 진흥회와의 협정을 체결하는데 원칙적으로 합의 하였으며

각계의견으로는

- LG전자 : 폐가전제품의 회수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해야 할 것이며, 이 사업과 예치금제도는 서로 양립할 수는 없음.
- 대우전자 : 장기적 안목에서 회수 및 처리단계별 체계 확립이 관건이며,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시설자금 지원이 필요
- 삼성전자 : 회수처리에 관한 정부의 전반적 대책 수립 요망
- 통상산업부 : 생산자 책임원칙에 의해 업계가 회수처리책임을 지라는 논리는 불합리하며, 현행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왔으며 또한 가전제품의 예치금 부과기준 개선과 가전제품은 생활폐기물로 분류, 업계가 사업 추진시 각종 허가 대상에서 제외 할 것을 환경부에 건의하였다.

## 유통구조 변화에 따른 대응방안 협의

본회 가전과에서는 지난 19일 본회 회의실에서 삼성전자, LG전자, 대우전자 등 관련업체가 모인 가운데 정부의 유통구조 재편 움직임과 관련한 가전업계 대책회의를 개최하였다.

지금 유통구조의 현황으로 정부의 입장은 양판점으로 가는 추세를 인정하여 구조변화를 모색중이나 재편에 따른 대리점체제 붕괴의 변화로 입게될 경제적 손실로 인해 구체적인 작업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각 사의 입장은 가전 유통구조의 개편(전속

대리점 → 양판점)은 시장기능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며 정부에서 인위적으로 개편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날 이에 대한 가전업계의 의견을 마련하여 대정부건의, 홍보, 관계자 설명 등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따른 회의결과로 정부의 유통구조 개편과 관련하여 전속대리점체제의 장, 단점, 인위적인 양판점체제로의 개편시의 문제점, 향후 가전업계의 유통시장 변화에 대한 대책 등 전자업계의 안을 마련하여 대정부건의, 홍보 등을 추진키로 하였다.

- 이를 위해 가전3사 유통전문가로 작업반을 구성, 대응자료를 작성키로 하였다.

## 전자산업하반기 9.5% 성장·전망

한국전자산업진흥회가 최근 주요 100대 전자업체(전체 생산의 80% 점유)를 대상으로 조사하여 하반기 경기전망을 발표 하였다.

이에 따르면 전자산업은 하반기의 수출이 반도체 등이 어느 정도 회복되어 21.6%의 비교적 높은 증가율을 나타낼 전망이나 내수는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상반기의 저조세가 하반기까지 이어져 9.5% 신장에 그칠 것으로 보아 하반기가 상반기보다는 다소 나아지겠지만 경기회복을 기대하기에는 아직 어려운 것으로 전망된다.

본회 이러한 예측을 하고 있는 것은 하반기의 수출증가가 구조적인 고비용, 저효율 생산여건 개선에 의해 비롯되었다기 보다는 수출 주종품인 반도체 DRAM('96년 전자전체 수출의 43.0%)이 올하반기와 비교되는 작년 하반기에 크게 저조했기 때문이며 일본과의 경쟁에 있어서 엔저가 엔고로 반전된다해도 그동안의 해외투자 등으로 인해 그 성과가 과거와 같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내수경기는 정보통신분야 신규서비스로 단말기 등 일부는 호조를 보이고 있으나 주종인 가전제품 및 PC 등은 극심한 불황을 보이고 있고 반면에 경쟁력이 취약한 일부 가전제품은 수입이 큰폭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 분	상반기(추정)		하반기(전망)		년간(전망)	
		증감율		증감율		증감율
수출(백만불)	21,099	-20.0	23,946	21.6	45,045	9.3
시판(10억원)	5,777	7.7	5,707	9.5	11,484	8.6
생산(10억원)	25,751	2.9	28,207	16.0	53,958	9.4
수입(백만불)	14,604	10.8	16,443	14.3	31,047	12.6

주) 시판에는 수출용 국내공급과 수입해 국내 판매한 분은 제외된 것임

○ 한편 주요 품목별로 보면 LCD, CD-ROM드라이브, 이동무선전화기, HDD 등 기술집약품목은 수출호조 현상이 뚜렷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막연한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보다는 업계의 신제품 개발 노력의 강화 등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과 함께 정부차원에서 한계보급에 이르는 가전제품에 대한 특소세 폐지 등의 대책이 긴요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수출호조 기술집약 품목의 수출 증가율〉

구 분	상반기(추정)		하반기(전망)	
	금액(백만불)	증가율(%)	금액(백만불)	증가율(%)
HDD	253	385.0	685	435.0
CD-ROM	37	363.7	104	398.5
이동무선전화기	393	115.0	533	100.0
LCD	319	225.3	620	240.1

〈자세한 내용은 이달의 초점①〉

## C-TV 수입급증 관련 가전업계 대책회의

본회 가전과에서는 지난 6월 본회 대회의실에서 LG전자, 삼성전자, 대우전자 등 가전 3사가 모인 가운데 C-TV 수입급증 관련 가전업계의 현안문제 타결을 위한 대책회의를 개최하였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저가소니 TV의 수입급증과 관련하여 현재까지의 추진결과 설명과 더불어 TV산업의 현상황에 있어 개발방안에 대해서는 시장상황이 디지털로 빠르게 변화하기 때문에 각사에서 각자 추진토록 하고 브라운관의 공동개발에 대해서는 브라운관업계의 의견을 수렴토록 하기로 하였으며, 또한 향후 TV산업의 장기 발전대책 수립을 위해 워크숍을 개최키로 하고 본회에서 계획을 수립하여 20~30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토록 하기로 하였다. 원산지 판정 기준의 변화는 원산지 판정 기준의 변경시 멕시코산의 표기는 정확하게 할 수 있으나 동남아산의 대거유입이 크게 우려되는 만큼 현행대로 부가가치 판정기준으로 유지키로 하였다.

이를 위해 각 사에서는 동남아산 TV의 CRT채용 현황 등의 자료를 취합, 제출키로 하였다.